



물오른 손흥민 “골 기대하세요” 이란과의 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4차전을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 손흥민이 14일 테헤란 페이칸 훈련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내일 새벽 월드컵 최종예선 ‘잠 못드는 밤’

박주영 원톱·손흥민 새도우 ‘지옥의 원정’ 이란 넘는다

포백에 윤석영-정인환-곽태휘-오범석
‘중원싸움’ 기성용 파트너 김정우 낙점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겨냥하는 최강희호가 박주영(셀타 비고)-손흥민(함부르크) 조합으로 17일 오전 1시 30분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이란 격파에 나선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축구 대표팀은 실전을 이틀 앞둔 14일(현지시간) 오후 이란 테헤란의 페이칸 경기장에서 강도 높은 전술훈련으로 막바지 담금질을 했다. 3일째 훈련까지는 회복 위주의 훈련을 하다 전날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간 대표 선수들은 이날은 더 진지한 분위기에서 2시간 가까이 전술을 가다듬었다. 순발력과 체력을 점검하기 위한 민첩성 훈련과 패스게임을 한 뒤 수비수는 따로 최강희 감독의 지도를 받았고 공격수와 미드필더들은 중원에서 패스를 받아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공격 전제 훈련을 했다. 최강희 감독은 이어 일부 선수들에게 주황색 조끼를 입혀 두 팀으로 나눈 뒤 미니게임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틀 후 이란전에서 선발로 나설 선수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조끼를 입지 않은 조가 선발로 예상됐는데 4-2-3-1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최전방 공격수



격수 박주영(셀타 비고)이,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겸 처진 스트라이커로는 손흥민(함부르크)이 자리잡았다. 좌우 날개에는 김보경(카디프시티)과 이청용(볼턴)이 섰고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기성용(스완지시티)과 김정우(전북)가 호흡

을 맞췄다. 또 포백 수비라인에는 왼쪽부터 윤석영(전남)-정인환(인천)-곽태휘(울산)-오범석(수원)이 들어섰다. 최 감독은 미니게임 도중에 손흥민 대신 김신욱(울산)을 주전조에 넣어 박주영과의 호흡을 점검했다. 또 이청용 자리인 오른쪽 날개에는 이근호(울산)를 세우고 김정우는 박종우(부산)로 대체하는 등 각기 다른 카드를 시험했다. 이들 세 포지션은 최 감독이 고심하고 있다고 수차례 말했던 곳이라 변화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선발-교체로 이어지는 조합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박주영의 파트너를 두고 고민했던 공격진에는 스피드와 개인기가 좋고 골 감각에도 물이 오른 손흥민을 내세워 상대 수비진을 파고드는 전략을 택했다. 높이와 힘에서 장점이 있는 김신욱은 후반 조커 투입이 유력하다. 최근 소속팀-대표팀에서 연속 중동 원정을 치르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측 날개와 중앙 미드필더에도 변화 여지가 남아있지만 수비진은 주전조 4명의 조합으로 구성을 마쳤다. 최 감독은 훈련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훈련이 가장 중요했다”며 “오늘 확인한 선수들 몸 상태와 경기 진행 속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강희 감독 “초반부터 ‘닥공’ ... 기필코 이기겠다”

최강희 월드컵 축구대표팀 감독이 난적 이란과의 원정 승부에서 “물러서지 않고 초반부터 강하게 승부를 걸겠다”며 “맞붙 작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선수들 현지 적응 상태는. ▲적응 거의 다 됐다. 중동 원정에서 환경 적응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우리팀 상태를 봤을 때 이번엔야말로 이란 원정(무승) 징크스를 깨야 한다. 충분히 그럴 힘이 있다. 오늘과 내일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면 좋은 경기를 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선수들 컨디션은. ▲특별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는 없다. 울산 소속 선수들이 사우디 다녀와서 한국에서 경기한 뒤 다시 중동에 와서 피곤할 수 있는데 현지에서 도착해서 회복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괜찮다. 선수들이 이번 이란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각오도 남다르다고 본다. 위기도 좋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란전의 의미는. ▲이 경기에서 이기면 우리가 브라질로 가는 길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선수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번이 이기면 내년에 치르는 최종예선 4경기를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고 반대로 잘못하면 쫓기게 되는데 잘못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출국 전 비기는 경기와 이기는 경기를 두고 고민이라고 했었는데 결정을 내렸다. ▲비행기 타고 오면서 승부를 내기로 이미 결정했다. 물러서고 지키는 경기를 한다고 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런 어려운 경기일수록 더 강하게 승부를 걸어서 이기는 경기를 해야 한다. 물러나서도 안 되고 물러나고 싶은 생각도 없다. 초반부터 강하게 정면대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비진은 결정된 건가. ▲선수를 뽑을 때까지는 고민을 많이 했

는데 소집 후 훈련을 하면서는 고민을 안했다. 상대 공격의 특성에 맞춰 초반에 영리하게 경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공격진은 주로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조합으로 보인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단연 돋보인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 몸 상태만 따라주면 언제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한다. 이청용도 어찌부러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좋은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어느 선수가(선발로) 나가도 큰 차이는 없다. -박주영(셀타 비고)이 공격의 중심인데. ▲이적 이후 경기를 계속 나가고 있고 대표팀에 와서도 적극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란전에 대비해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본다. 박주영도 중요하지만 팀 전체가 더 중요한데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게 진행되고 있다.

“그라운드가 그리웠다”



김성한 한화 코치 8년 만에 현장 복귀 변화의 야구 하겠다 ... 호남 팬들에 감사

‘김응용 사단’에 합류한 김성한 KBO 기술위원이 ‘변화의 야구’를 강조했다. 수석코치로 한화 유니폼을 입게 된 김성한 위원은 “그라운드가 그리웠다. 그동안 야구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지내왔지만 아쉽기도 하고 그라운드 생각이 간절했다. 가장 절실한 사람이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생각이 난다”며 “다시 유니폼을 입고 그리웠던 곳에 선다는 생각에 긴장도 되고 기분이 좋다”고 현장 복귀 소감을 밝혔다. 김 수석코치는 또 “앞으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코치상이 될 수 있도록 생각과 준비를 잘 하겠다. 중요한 것은 변화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성적 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은 물론 코칭 스태프들도 변화에 도전해야 한다. 앞장서서 선수들을 설득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데 일조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그동안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지역 팬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수석코치는 “그동안 야구를 해왔던 곳이 아닌 곳이지만 다시 야구를 할 수 있다는 자책에 행복하다. 섭섭하기도 하겠지만 한화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팬들에게 받은 사랑과 관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성용 선수 “우즈베크전 자살골 이란서 만회하겠다”

한국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기동’ 기성용(스완지시티)이 우즈베크스탄전에서의 부진을 이란전에서 활약으로 만회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성용은 14일(현지시간) 오후 이란 테헤란의 페이칸 경기장에서 닷새째 현지 훈련을 소화한 뒤 취재진에게 “지나간 경기를 잊고 좋은 활약으로 만회하겠다”고 말했다. 대표팀 중원에서 부동의 핵심인 그는 지난달 우즈베크스탄과의 3차전 원정(2-2 무승부)에서 상대 코너킥을 걸어내려다 자책골을 기록했던 그는 이를 앞으로 다가온 이란전에서는 더 나은 모습을 약속했다. 기성용은 “조금 더 집중했다면 지난번 경

기에서의 자살골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나간 경기는 잊었고 앞으로 좋은 경기로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주일 전 소속팀 경기 도중 총들로 왼쪽 종아리에 타박상을 입는 등 몸 상태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란과의 원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기성용은 “부상 때문에 100% 컨디션은 아니지만 완전한 몸 상태로 끌어올려서 출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를 얻어야 하는 경기만큼 원

정 경기라도 이기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선수들이 충분히 그럴만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경기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주장 하비드 네쿠남(에스테그랄)이 한국을 두고 ‘지옥을 맞보게 해 주겠다’고도 말했다는 말을 전하자 기성용은 “지옥 맞는 데요”라는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다. “인터넷도 잘 안되고 날씨도 이상하고 운동장 상태도 안좋고 지옥이 맞는 거 같기도 하다”고 재치있는 농담으로 받아친 기성용은 “지옥은 지옥이지만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연합뉴스